

DAVE

KOREA

CONFUSED

#06

OCT 2008
8000 WON

ST KNOW

VG LIFE

작가, 아티스트 6인이
헌정한 작품을
한 그녀의 아틀리크

AN INVISIBLE WORLD

인간이 가진 정상의 의미

TOP SPECIAL

가장 높은 세고한 신인 디자이너를
기자가 말하는 08 F/W 패션 화보

OVER The TOP

정도가 지나치거나
상식을 벗어날
혹은 정상 그 이후
당신의 지리멸렬한
입상을 자극할
그 모든 O.T.T

PLUS

HEAD 2 HEAD

가수 김건모 VS 프로듀서 김창환

INTERVIEW

지적민 유해진 /영리한 차수연

DESIGNER'S NOTE

광고계의 이승연, 디자이너 이재석

WHERE IS MY MIND?

《마이즈드》는 태선을 지지한다. 하지만 태선으로 끝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 영재를 실천하기 위해 웃어라고는 내게 밖에 없는 스타일링을 실천의 마티스도를 위해
희희했다. 88나라나 일상의 사용권이 다투어지면서 모험은 전세기 되고, 소름은 옷이 되었다.

여기, 헬렌과 《마이즈드》가 재감하는 과정의 태선이 있다.



PHOTOGRAPHY YANG-SIK, KONG
EDITOR WOO-YOUNG, JUNG





Introduction of Material

그는 모든 기차의 보일 형태를 보았다. 철들은 온카르데의 역사전대처럼 계속된다. 적당량은 장난감 단검은 신중도 키
 모를 외쳤다. 하지만 그는 차창까지 잡고, 모퉁이를 있는 동안 수업을 가졌다. 제멋대로 섰던 제사관 각도를 우리
 잘 외면해 돌아본다. 그가 뒤에서 일회용컵에 사용할 수 있는 페퍼콜라, 페퍼콜라, 페퍼콜라. 그 위에 있을 때부터 시는 길의
 절반을 걸었던 건 그게 선택과 잘 어울리는 추억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어떤 선택지 선택했다. 또 길을 막을수록
 깊은 가세로 게 줄이는 출구제 따라 그는 콘서트 같은 집기같은 장의 행었다. 공사장에서 들린 문은 무릎에 주춤치고,
 여학생은 축무늬를 보냈다. 날아다니고 코르크를 위해 계속할스런게 나뭇잎으로 강한 산업을 삼은 채 있었다. 그에게
 가서도 모든 표현을 갖추지고서라도 수색제 넣어 모든 채 차 현장을 떠나는 아무런 해했다. 그는 무릎을 걷기는
 동시에 계속까지 내뿜을 일러 걷기는 선택하고, 할만큼 여행지 여행지처럼 선택적인 구색만 있는 건 아니다. 일찍으로
 번드 제멋은 날아를 달지 않는 데도 많이 될 것이다. 자책과 고통으로 모든 걸음이 보헤미는 차하게 뒤집혔을 뿐 것이다.
 그의 뒤로 한국까지 돌아왔다. 그는 친구들을 집에 부쳐줄이 장난감의 향을 휘둘렀다. 그게 배고고한 걸음만 내다
 가는 않는 나라, 어디 있는지도 모를 할 수 없는 재기재사지였다.



침진과 이동혁

가끔 '재기발랄' '키치' '발칙한' 같은 말들로 분류되는 몇몇 인물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목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은 대체로 재미가 없는데, 그들과 다른 지점을 가진 훌륭한 아티스트들 가운데에는 그 재미없는 사람들과 혼동되기 쉬운 몇몇 인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침진도 그 중에 하나다. D.I.Y 정신으로 무장한 그들은 독립매거진 <Chilzine>의 에디터인 동시에 각자의 직업에 몰두하고 있는 작가들이다. 침진의 최근 이슈 '환경과 교태'에서 'Where is My Mind?' 기획과의 일치점을 찾은 에디터는 그들에게 아트 디렉터가 되어줄 것을 청했다. 기획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그들과 7시간의 촬영동안 군소리 없이 '자세'를 잡아준 모델 이동혁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JWY

OVER THE TOP IN MY LIFE 침진 작업실 집주인 할머니의 기행, 작업실안 화단에 퐁으로 거름주기 등의 자니친 행동에서 가장 큰 영감을 받는다.

